

익산 둘레길, 3개 대표코스로 거듭난다

6개 노선, 3개 노선으로 재정비
유명무실 무왕길·용화산길 제외
올해 미륵산 둘레길 노선 정비

익산시가 '익산 둘레길' 대표 코스를 조성해 걷고 싶은 관광명소로 탈바꿈한다.
시민과 탐방객이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하면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생태탐방로인 익산 둘레길이 3개의 대표 코스로 재탄생 해 익산 대표 문화관광 트레킹 코스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익산시 둘레길 6개 노선 구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둘레길의 조성 취지에 맞는 생태환경, 이용 빈도, 접근성, 시민의견 등을 고려해 6개 노선(99km)을 3개 노선(55.6km)으로 정비해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에 나간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함라산둘레길, 무왕길, 강변포구길, 미륵산둘레길, 용화산둘레길, 나바위성지길 등 6개 구간 99km로 조성된 현재 노선 중 나바위길이 강변포구길에 포함되며, 쌍릉에서 미륵산까지 가는 길 '무왕길'과 서동공원에서 이 병기 생가까지 이어진 '용화산둘레길'은 익산 둘레길에서 제외한다.

시는 오랜 기간 이용이 적어 길이 없어지거나 사유 농경지나 사유지 폐쇄로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발생하고 대형트럭 통행차도, 군사지역 인접구간 등 이용하기 부적합한 구간이 포함된 무왕길과 용화산 둘레길을 과감히 둘레길에서 제외하고 기존 3개 노선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익산 둘레길의 하나인 구룡마을 대나무 숲길을 관광객들이 걷고 있다.

〈익산시 제공〉

올해는 우선 미륵산다목적센터와 기양저수지에서 서동공원까지의 미륵산 둘레길 노선에 대해 안내판 등 시설물 정비와 예초 작업을 진행한다.

나바위성지길을 통합한 강변포구길과 나머지 둘레길도 매년 예산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노선조정과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탐방객의 성취감과 소소한 재미를 더하기 위해 전북도에서 지정한 천리길과 중복된 구간에 스텝 박스를 설치하고 스텝프북을 제공하게 된다.

미륵산 둘레길 주변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국립박물관, 국

보 제11호인 미륵사지석탑, 국보 제289호인 왕궁리 5층 석탑 등이 있어 힐링과 색다른 문화체험을 함께 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걷기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간 유명무실한 둘레길 구간을 과감히 정리하고 꼭 필요한 구간의 집중 관리와 새로운 구간의 발굴을 통해 시민과 탐방객들이 일상으로부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호리병인 듯 얼굴인 듯... '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 명승 된다

백악기 용암·응회암으로 형성
문화재청 문화재 지정 예고

보는 각도에 따라 없어진 호리병 혹은 사람 얼굴을 연상시키는 고창의 독특한 바위 풍경이 명승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고창 병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창 아산면 반암리 호암마을에 있는 병바위는 높이가 35m에 이르며, 주변에 커다란 소반바위·전좌바위가 있다. 중생대 백악기에 분출된 용암, 화산재로 만들어진 암석인 응회암이 풍화·침식 작용을 거치면서 형성된 지형이다.

수직 절벽인 단애, 층층이 쌓인 퇴적암, 바위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성된 구멍을 볼 수 있다. 바위에는 백화등·담쟁이 같은 덩굴식물이 자생하고,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 존재한다.

호리병 바위를 뜻하는 '호암'(壺巖)으로도 일컬어지는 병바위에는 흥미로운 전설도 내려온다. 잔칫집에서 취한 신선이 쓰러지면서 소반을



고창 병바위 일원 전경.

〈고창군 제공〉

걸어차자 소반에 있던 술병이 강가에 거꾸로 꽂혀 병바위가 됐다고 한다.

이 전설로 인해 주변 바위와 함께 '금반옥호'(金盤玉壺), '선인취와'(仙人醉壺)의 명당으로 꼽혀 왔다.

역사적으로는 여지도서, 대동지지, 호남읍지 등 옛 문헌에 '관아의 서쪽 20리 장연(長淵)가에 있다', '병(壺) 모양으로 서 있어 호암(壺巖)이라고 불린다'는 기록이 있다. 1872년 제작된 '지

방지도'는 바위를 병 모양으로 강조해 묘사하기도 했다. 전좌바위 옆면에는 작은 정자인 두암초당이 있다. 변계량 후손으로 하서 김인후 아래에서 수학한 변성온·변성진 형제와 후손들이 학문을 닦았다고 전한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창 병바위 일원의 명승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선운산 일대 동·식물 521종 서식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

멸종위기종 '벌매'도 포착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일대에 멸종위기종 등 521종의 동·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사단법인 전북생명의숲이 공동 주관한 '선운산 생물다양성 탐사' 행사가 열렸다.

탐사에는 식물·곤충·어류·포유류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모두 521종(식물 314종·곤충 92종·선대류 32종·포유류 9종·어류 11종·조류 63종)의 생물이 포착됐다.

특히 매년 가을 한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이동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벌매'도 목격됐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수달의 흔적도 선운전 하류 쪽에서 발견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선운산이 가진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태환경에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유·초등생 비대면 '금강미래 체험꾸러미' 운영

군산금강미래체험관 2개월간

군산금강미래체험관(옛 금강철새조망대)은 다음달까지 2개월 간 비대면 체험프로그램인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강미래 체험꾸러미'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운영이 중단된 유·초등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대신해 운영하는 것으로 이번 프로그램은 재활용이 어려운 폐CD를 활용한 북극곰 시계만들기 수업을 진행한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난 해 시범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26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1500여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참여자를 대폭 늘려 1700여명 정도의 유치원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수업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이용해 금강미래체험관과 신청유치원이 온라인으로 연결,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이번 프로그램의 주제는 금강미래체험관의 기후위기 5대 주제 중 하나인 '자원순환'이다.

또한 쓰레기 분리배출과 관련된 10분짜리 영상을 시청한 후 강사와 함께 각자의 집에서 가져온



폐CD를 활용해 북극곰 시계를 만들게 된다. 비대면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해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각색, 짧은 인형극을 제작했는데 인형극은 금강미래체험관 페이스북에 들어가면 시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쓰레기 증가로 쓰레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며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은 모든 사람이 생활속에서 습관화해야 한다"고 분리배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정읍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이달부터 운영

실태조사·상담·교육 등 업무

정읍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없는 공정노동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동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충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 기관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서 탄생했다.

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조사와 상담, 교육, 이주노동자 지원사업과 고용 촉진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힘을 기울인다.

또한 노무법인과 협약을 통해 어려운 법률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 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민간 위탁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와 정읍시의회 민간 위탁 동의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올해 2월에 거쳐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다.

이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민주노총 정읍시지부를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전문 상담원 2명을 배치했다.

시는 이번 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수혜 대상을 확대해 비정규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운영을 검토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앞장 설 계획이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센터가 노동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자가 일을 통해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